

전남도, 임산부에 유기농쌀 구매 비용 지원 추진

전국 최초... 일반쌀과 가격 차액만큼 1년간 지원

전남도가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임산부들에게 유기농산물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태아 발육과 임산부 건강을 위한 방안이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탓에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태아 발육에 도움을 주는 친환경쌀을 임산부에게 공급하고 더불어 전남산 친환경

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임산부 유기농쌀 구매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 방식과 지원 마련 방안을 모색중이다.

아기나 임산부는 농약이나 인공첨가물과 같은 물질에 일반 성인들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학적 상식에서 착안했다.

제조제와 살균제, 살충제의 과반수 이상이 발암물질이고 출산을 저하하

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결과다.

1인당 연간 쌀소비량이 69.8kg이고, 임산부 세대당 2.4명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결과다.

정부 교부금이 넉넉하지 않고 일선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기도 녹록치

않아 사업비 마련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친환경쌀일지라도 미질과 가격, 브랜드가 천차만별이어서 지원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지도 고민거리다.

전남도 관계자는 “친환경 먹거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보육과 복지를 동시에 아우르는 사업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들이 출산 전후 친환경 유기농쌀을 부담없이 섭취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 마련으로, 일반쌀과의 차액이 큰 만큼 최소한 연간 4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kg 쌀을 기준으로 친환경쌀은 평균 6만~7만5000원, 일반쌀은 4만~5만원 수준으로 가격 차가 뚜렷하다.

차액을 보존해줄 경우 상당수 임산



곡성 민간주도 생태관광센터 출범

정부 시범지역 선정
관광해설사 등 양성

곡성에 순수 민간주도의 생태관광센터가 생겼다.

곡성군은 9일 곡성문화센터에서 허남석 곡성군수를 비롯한 주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곡성생태관광센터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센터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환경부에서 올해부터 추진하는 생태관광 지정제 시범지역에 곡성군의 '생태습지 나들길'을 포함한 전국 5개 시군이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환경관련 전문가 등 민간주도로 구성된 센터는 생태습지를 활용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생태관광 해설사 양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민교육, 생태관광 프로그램 시범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정연하 곡성생태관광센터장은 “곡성군만이 가지고 있는 섬진강과 보성강의 생태습지 나들길을 기점으로 한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최고의 생태자원 고장으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전남, 김장채소 수급 안정 나서

재배면적 10% 증가 예상 가격 폭락 우려

전남도가 올해 김장채소 재배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수급안정책 마련에 나섰다.

한 해 걸러 재배면적이 불규칙한 데다 산지 가격이 요동을 치는 만큼 효율적 수급조절에 애를 먹기 때문이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와 겨울배추, 가을무의 재배면적이 지난해 대비, 10% 안팎 늘 것으로 전망됐다.

요즘 분발 옮겨심기(정식)에 들어가기 시작한 가을배추 면적은 3378ha로 전년 2937ha보다 441ha(15%)가 늘었다.

사실상 전국 생산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겨울배추(월동배추)는 5300ha로 전년보다 435ha(9%)가 더 늘 것으로 예측됐다.

겨울배추 전남 점유율은 98%다. 가을무는 1363ha로 전년 1196ha보다 167ha(14%)가 더 심어졌다.

전남지역의 가을배추와 무의 전국 점유율은 23%와 18%다. 이처럼 재배면적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한파로 배추와 무 가격이 호조를 보인 데다 올해는 정식 시기에 적당한 강우 등 기상여건이 좋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재배면적이 10%만 변동이 있어도 산지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한다는 데 있다. 평년 대비 10%가량 면적이 줄었던 지난해 김장철 배추 가격은 평균(도매가 10kg) 9202원으로 평년 7227원과 비교해 27.3% 급증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김장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해 적정면적 재배를 권장하고 농협이나 김치가공업

체와의 계약재배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또 10월 상순까지 분발 정식시기를 맞아 시군을 돌며 적정재배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남 시군이 보유한 농산 가격안정기금(231억원)과 농어촌진흥기금 등을 활용, 가격변동에 따른 수매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지역 김치 가공업체는 해남 18곳, 무안 7곳 등 모두 80곳에 이르며 생산량은 20만8000t(가공능력 80만t)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산물 특성상 재배면적이 조그만 변화가 있어도 산지 거래가격은 급등락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적정 재배면적 유도와 계약재배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담양 딸기 모종 다듬기

담양군 월산면 월평리에서 9일 농민들이 딸기 모종 다듬기에 여념이 없다. 묵은 잎 제거작업 등을 마친 딸기 모종은 다음달 하우스로 옮겨진 뒤 내년 2~3월께 출하된다.

/담양=정재근기자 jgg@kwangju.co.kr

“소중한 생명 지킴시다”

장성, 자살예방 캠페인

장성군은 세계자살예방의 날(10일)을 맞아 9일 황룡시장에서 캠페인을 벌였다.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캠페인에는 정신 주간재활프로그램 참여 장애인 및 자원봉사자 50여명이 참가했다.

군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캠페인에선 ‘치매 극복 가능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치매예방 캠페인도 전개했다.

장성군보건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세계 1위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이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울증에 대해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생명의 전화(1577-0199)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장성=김홍희기자 yongho@

전남도, 자원봉사 우수 체험사례 공모

전남도가 다음달 9일까지 자원봉사활동 우수 체험사례를 공모한다.

모집 분야는 일반부와 학생부로, 응모작은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해 오는 12월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시 도시대표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응모 자격은 전남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전남에 소재한 직장이나 학교에 재학 또는 재직하면서 전남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이면 가능하다.

체험사례는 A4용지 3~5매(표지

제외) 분량으로 최근 2년 이내 자원봉사 활동을 산문형식으로 자유롭게 작성해 봉사활동 사진과 함께 이메일(ejko0515@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자원봉사자들의 체험수기 사례집인 ‘남도사람들의 훈훈한 이야기’를 발간해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와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여수공항 살리자”

18개 기관 참여 ‘광양만권 활성화협의회’ 창립

여수·순천·광양시 등 전남 광양만권 중심 공항인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광양만권 공항 활성화 협의회’가 창립된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여수공항을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 상의, 시의회, 기업, 국가기관 등 18개 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광양만권 공항 활성화협의회’가 11일 여수 디오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한다고 밝혔다.

18개 기관 대표들은 지난 7월 광양만권발전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 발굴 등을 목적으로 이번 협의회 발족에 합의했다.

창립총회에서는 초대회장 선임, 협의회 운영규약 마련, 공항 활성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여수=김정희기자 chkim@

이용객이 적어 적자에 시달리는 여수공항은 지난 2011년 완주~순천 고속도로 개통, 같은해 전라선 KTX 개통 등으로 이용객 감소 추세가 더욱 심화,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협의회 구성 18개 기관은 여수·순천·광양 등 3개 시 상의와 시의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여수지방해양항공청, 여수출장소, 한국공항공사 여수지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수지점, 여수산단공장조합협의회, 광양제철소 등이다.



2013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300

알로에겔 Green aloe gold

“

국내 최고 함량으로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천연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력증진·장건강·피부건강**
도움을 줄 수 있음

'그린알로에'의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합성보존료, 합성감미료, 합성착향료가 없는 '3無 제품'으로 우수한 품질력과 소비자의 기대를 만족시켜 '2013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건강기능식품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린 알로에 FOR YOUR HEALTH